

September 29, 2006

dongA.com

박근혜 전 대표 "북핵 포기 땀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추진"

독일을 방문 중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28일(현지시간) "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다면 주변국과 국제기관이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(NEADB)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"고 밝혔다.

박 전 대표는 이날 베를린 아데나워 재단에서 '독일과 한국 : 함께 열어나가는 미래'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.

그는 동북아개발은행 구상과 관련해 "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몽골과 유럽연합(EU), 세계은행(IBRD),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, 아시아개발은행(ADB) 등 국제금융기관이 공동 출자, 북한의 경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, 몽골 등 동북아지역의 개발에도 투자하는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그는 "동북아개발은행은 일단 5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하되, 한국이 15억 달러를 대는 등 30억 달러는 역내국가에서 마련하면 될 것"이라며 "동유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경우 투자유발효과가 10배 정도 됐다"고 덧붙였다.

박 전 대표는 이어 "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핵문제 해결 이후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'동북아안보협의체'로 발전해가기를 희망한다"며 "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안보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용된다면 이를 동북아안보경제공동체(NEASEC)로 확대발전시켜갈 수 있을 것"이라고 밝혔다.

그는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 "독일의 경우 동독과의 교류 때 지원하는 만큼 분단 고통의 완화란 대가를 반드시 관철시켰다"면서 "한국도 북한의 약속 이행에 상응하는 지원을 통해서 변화를 유도할 때 올바른 남북관계로 갈 수 있다"고 주장했다.

그는 또 "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중간 정도인 혼합체제 비슷하게 될 수는 없다"며 "통일한국이 지금 한국이 누리는 자유와 인권을 후퇴시킨 국가가 되서는 안 된다"고 강조했다.

그는 연설 후 질의 응답 시간에 "여성 정치지도자로서 어려움이 없겠느냐"는 질문을 받고 "강하다는 것은 근육이 더 많고 목소리가 더 큰 게 아니라 옳다고 믿는 것이나 나라를 위해 소신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것"이라고 말했다.

이에 앞서 박 전 대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"취임한 뒤 새로운 지도력이 성공하고 있는 데 대해 축하한다"고 인사했고, 메르켈 총리는 "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언제 있느냐, 성공하기를 바란다"고 덕담했다.

박 전 대표는 이어 메르켈 총리에게 독일주재 미군의 역할에 대해 물었고, 메르켈 총리는 이에 대해 "미군이 이란 등 다른 곳을 가는 데 중간기지로 주로 활용하며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. 주민들이 미국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지를 폴란드로 옮긴다면 섭섭해 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박근혜 전 대표 "북핵 포기 땀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추진"

디지털뉴스팀·베를린=연합뉴스

September 29, 2006

dongA.com

Übersetzung

Park Geun-Hye: „Nach Aufgabe des Atomprogramms Gründung einer Nordostasiatischen Entwicklungsbank vorantreiben“

Frau Park Geun-Hye hielt an der Konrad-Adenauer-Stiftung in Berlin eine Rede mit dem Titel „Deutschlands und Koreas gemeinsame Zukunft“.